



강진 김명일



고흥 한운섭



곡성 김광휘



구례 박진호



담양 박종영



무안 이기성



보성 안규일



순천/광양 김승호



여수 김석철

## 구례군, '용방 겨울감자'

## 대체 소득작목으로 육성

### '감자-수박-벼' 새로운 작부체계 비닐하우스 단지 조성



구례군은 황금빛갈 영양덩이리 '용방 겨울감자'가 벼농사를 대체하는 새로운 소득 작목으로 각광받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에 정식하여 올해 2월부터 4월까지 출하를 마친 '용

방 겨울감자'는 비닐하우스 100동(7ha) 20여 농가에서 180톤을 수확하여 4억여원의 농가소득을 올렸다.

'용방 겨울감자'는 미네랄과 비타민C 등이 풍부하고 맛이 뛰어나며 저장성이 좋은 것이 특징이며 감

자재배에 적합한 알기리성 사질토양에서 재배한 것이 그 이유로 꼽힌다.

특히, '용방 겨울감자'는 벼농사보다 소득이 9배 정도 높아 겨울철 효과작목으로 자리 잡아 가고 있다.

4월초순에 감자를 수확 후 곧바로 수박묘를 식재하고 6월에 수확 후 벼를 심거나 일부 농가에서는 지역중진을 위해 휴경하는 체계로 '감자-수박-벼'로 이어지는 새로운 비닐하우스 작부체계가 농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구례군에서는 '감자-수박-벼'로 이어지는 새로운 작부체계 비닐하우스 단지를 10ha에서 35ha로 확장시킨다는 청사진을 제시하며 관련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구례=박진호 기자

## 보성군, '행복한 문화를 즐기는 아트 페스티벌'

보성군은 2019 행복한 문화를 즐기는 아트 페스티벌 오는 6월 4일 오후 3시와 저녁 7시 30분 보성군문화예술회관에서 심장을 울리는 타악콘서트 '아프리카 리듬과 열정을 아나포(AnayFo)' 공연을 선보인다.

그들 아나포는 광주에서부터 빠르게 영역을 확장해가고 있는 대표적인 아프리카 타악그룹으로 아프리카 말링케족의 말로 다함께 연주하자'라는 뜻이다.

이번 공연은 관객과 함께하는 참여형 공연으로 서아프리카 전통리듬에 춤과 극이 어우러져 각 레퍼토리마다 다채롭고 생동감 넘치는 화려한 퍼포먼스를 경험할 수 있다.

특히, 모든 관객들에게 아프리카 전통악기(렘베)를 제공하여 즉흥적으로 극에 참여하며 함께 공연을 만들어가는 재미를 느낄 수도 있다.

군 관계자는 "낮선 장르인 아프리카 음악과 춤을 우리지역 주민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라며 지역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보성=안규일 기자

## 순천조례호수도서관 큐브간판 아이들이 만든 작품으로 교체

순천시는 조례호수도서관의 대표 간판을 큐브 공공미술 프로젝트를 통해 아이들이 만든 도서관 간판으로 교체했다고 2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조례호수도서관 대표 간판은 2010년에 큐브 간판의 아크릴판화 작품을 설치해 8년 만의 교체다.

이번에 부착된 아크릴판화는 '2019년 큐브 공공미술 프로젝트'를 통해 학생들이 직접 만든 작품으로 큐브 간판 54개 면을 전체 교체했다.

공공미술 프로젝트는 조례호수도서관 대표 큐브 간판을 재탄생시키는 프로젝트로 초등학교생들이 참여해 대형 아크릴 판화를 제작했다.

제작된 작품들은 지난 3월 27일부터 4월 5일까지 순천생활문화센터 영동1번지에서 '나눔! 나, 너 그리고 우리'라는 주제로 전시됐다.

전시기간 아크릴판화 등 작품으로 큐브 간판을 교체한 것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민 참여 큐브 간판 작품 교체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새로운 아크릴판화 작품을 매 5년마다 교체할 계획이며, "큐브 간판이 조례호수도서관의 랜드마크로 거듭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조례호수도서관 대표 간판 큐브는 모형 자체만으로도 상징성이 있는 조형물이다. 3X3X3으로 이뤄진 큐브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 삼리학과 과학과 미학, 하늘과 땅과 사람과의 연대 등 숨겨진 제작 의도가 있다.

지난 2010년 도서관속 공감함이 프로그램을 통해 아크릴 판화를 제작하여 큐브 간판을 만들어 지금까지 조례호수도서관의 대표 간판으로 자리매김 해 왔다.

순천=김승호 기자

## 광양시, 국가중요농어업유산 상생협력 행정협 업무협약

### '섬진강 재첩잡이 손솔어업' 세계농업유산 등재 발판 마련



광양시는 지난 20일 하동군 컨설팅 리조트에서 열린 네트워크 출범 및 상생협력을 위한 '국가중요농어업유산 상생협력 행정협의회'에 참가해 국가중요농어업유산 네트워크 출범 상생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식은 한국농어촌유산학회와 하동군이 주관하고 농림

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경상남도, 한국농어촌공사가 후원했으며 19일부터 22일까지 하동군에서 진행되는 '제6회 동아시아 농업유산학회 국제컨퍼런스' 기간에 개최됐다.

이날 협약식에는 국가중요농어업유산으로 지정된 광양시를 비롯한 완도, 제주, 구례, 담양, 금산, 하동, 울진, 무안, 울릉, 의성, 보성, 장흥, 남해, 신안 등 16개 지방자치단체장이 참석했다.

시는 업무협약을 통해 자치단체간 조직적 네트워크를 구축해 상호 협력을 도모하고, 인근 지역 간 관광상품 연계개발과 다양한 활동 등 정보교류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농어업유산을 관광 상품 개발 및 판매 등에 활용해 지역 소득 창출에 일조하고, 농어업유산 보존 및 활용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해 정책에 반영할 예정이다.

이울러 지자체 간 농어업유산의 가치를 제로명해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박영수 철강항만과장은 "시는 하동군과 협력해 '섬진강 재첩잡이 손솔어업'을 세계중요농어업유산에 등재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세계중요농어업유산으로 등재된 바 있는 완도, 제주, 금산, 하동의 노하우를 습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광양=김승호 기자

## 순천 5월 문화가 있는 날, '씻(金)소리' 영동1번지에서

### 오는 25일 생활문화센터서 옥상피크닉 등 진행

순천시 생활문화센터 영동1번지에서는 오는 25일부터 5월 문화가 있는 날' 행사로 순천 생태 생활문화 이야기 동행 '씻(金)소리'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문화가 있는 날'은 일반인들에게 생활 속 문화 참여기회를 확산하기 위해 운영하는 것으로 지난 4월은 '흙(土) : 봄의 정원'을 주제로 진행됐다.

이번 5월에는 쇠(金)를 테마로 진행된다. 사진 프로그램으로는 '금빛선물' 전시가 20일부터 31일까지

1층 전시실에서 열리며 프리오픈으로 운영된다. 이외에도 청바지 입싸이클링, 야생과 그리기, 보테니컬아트, 전통&퓨전댄스, 규방공예가 진행 예정이다.

25일 오후 1시부터 열리는 본 행사에는 빈티지, 언사이클링, 소품 중고물품 등을 판매하는 '구닥다리 장터'와 레크리에이션 및 문화예술공연을 즐기며 도시락을 나누어 먹는 포스트락 파티 '옥상피크닉'이 운영될 예정이다. 현재 두 프로그램 모두 참가신청을 모집

중에 있다. 신청은 영동1번지에서 현장 접수와 이메일 접수(lkkang@naver.com)로 가능하다.

25일 체험 프로그램으로는 대형 모래놀이터(모래치료놀이), 순천 창작예술촌 레지던시의 김도영 작가와 함께하는 쇠를 활용한 사운드 아트 체험, 일회용 컵 화분 만들기 체험, 재활용 금속 화분 만들기 체험, 방죽유기 체험 및 당일전시, 색모래 체험이 무료로 진행되며 응급에 팔찌 만들기, 칠보공예 액세서리 체험은 선착순 20명 무료체험 이후 유료로 전환된다.

순천=김승호 기자

## 영광군, 청년 싱크탱크 운영보고회 개최



영광군은 지난 17일 영광 여성문화센터 1층 다목적실에서 군수 및 군의원, 청년 관계자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 상반기 청년 싱크탱크 운영보고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행사에서는 상반기 활동사항을 보고하고 교육, 문화, 복지, 일자리 4개 분과 회의에서 청년주도적인 문화행사 기획, 관심사가 있는 일자리 관련 강사 초빙 등 현실에 공감할 수 있는 다양한 청년정책을 제시하였으며 전체 토론을 통해 양

의로의 활동방향을 논의하였다.

위원들은 상반기에 17회의 정책의제 발굴회의를 통해 청년기업 역량강화사업, 마케팅 및 기획자 양성교육 프로그램 개설 등의 8건의

정책의제를 제안하였고 청년 프리마켓을 5회 운영하였다.

향후 활동계획으로는 오는 7월 청년정책 의제 발표회를 개최하여 우수한 팀 6팀을 선발해 시상할 예정이며 11월에는 청년활동 결과 발표회를 열어 그간 진행한 정책의제 및 성과를 공유하는 시간을 통해 향후 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영광=서희원 기자

## 함평군 흑염소연구회 보성 선진지전학 실시

함평군 흑염소연구회 및 지역농가 30여 명이 지난 18일 보성 늘푸른흑염소농장을 방문해 선진지 견학을 실시했다.

이번 선진지견학은 선도농가탐방을 통한 흑염소 사육기술향상, 흑염소 가공 및 유통활성화 방안 등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견학은 사육시설 및 방목장 탐방, 흑염소 육가공 제품 및 요리 시식 등 현장중심교육으로 진행됐다.

이대복 함평군 흑염소연구회장은 "이번 선진지 견학은 농가 여건에 맞는 소득모형을 발굴하는 것이 주목적"이라며, "오늘 현장에서 보고 느낀 것을 토대로 지역 흑염소 업계의 소득 창출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www.jepa.kr

### 전라남도비정규직노동센터를 운영했던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전라남도중소기업진흥원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새롭게 도약합니다!

중소기업진흥원은 중소기업 성장지원으로 행복공동체 구현을 목표로 기업들의 매출증대가 고용창출을 낳는 선순환 경영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전라남도 출연기관입니다.

주소 | 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룡3길 2(전남도청 옆)

- 무료법률상담**
  - 무당해고·임금체불 등 비정규직 근로자 노동 상담
  - 중대 사안 관계기관 진정
  - 구제신청 지원 및 의견제출(노동사·자문변호사)
  - 유관기관 연계를 통한 상담 무료 운영
- 취약근로자 권익보호·지원**
  - 근로조건 불합치사업장 근로자 상담 및 법률지원
  - 감시단속적 근로자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 활동
  - 일용직 근로자 보호를 위한 임금체불 진정 상담 및 지원
- 최저임금·비정규직 차별신고센터 운영**
  - 중소기업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들에 대한 최저임금 위반사례 접수
  - 비정규직 근로자 상담을 통해 차별적 요소 확인 및 시정 요청, 행정기관 법률구제 신청을 위한 서면작성 지원 및 법률 자문
- 노동법률교육**
  - 근로자 및 사용자 대상 노동법 및 노사관계관련 교육 실시
  - 비정규직에 대한 인식개선 및 적절한 인사관리방안 안내